

고무·플라스틱, 1/4분기 수출 감소

산업부, 마이너스 1.7%로 줄어들어 ... 중국수출 의존도는 하락세

산업통상자원부는 2013년 1/4분기 소재·부품 수출액이 636억달러로 2012년 1/4분기에 비해 5.2%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.

소재·부품 수입액은 404억달러로 1.2% 증가했으며, 무역수지는 232억달러 흑자를 기록해 8분기 연속 흑자 규모가 200억달러를 웃돌았다.

전자부품 13.1%, 전기기계부품 15.4%, 수송기계부품 6.1%, 비금속광물 57.4% 등의 수출이 증가했다.

1차 금속은 마이너스 14.9%로 크게 줄었고, 고무·플라스틱 마이너스 1.7%, 섬유 마이너스 1.4%로 줄어들었다.

그러나 1/4분기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무역 흑자를 냈고, 수출 의존도가 다소 완화했다.

중국과의 소재·부품 무역에서는 107억달러 흑자를 기록했으며, 수출 의존도는 2010년 36.3% 2011년 34.5%, 2012년 34.1%, 2013년 1분기 33.4% 등으로 하락했다.

소재·부품의 일본 무역수지는 53억8000만달러 적자로 2012년 1/4분기보다 적자가 1억9000만달러 축소됐으며, 2005년 27.1%를 기록했던 수입의존도는 2010년 25.2%, 2012년 23.0%, 2013년 1/4분기 21.5%로 낮아졌다.

산업통상자원부는 1/4분기 영업실적을 고려할 때 2013년 소재·산업분야의 무역흑자가 2012년의 909억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13/04/12>